

대학원생 글쓰기 상담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가?

• • •
박정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1.

글쓰기교실에서는 2014년도 〈대학원생 글쓰기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14년 현재 1만 천여 명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학부생을 포함한 전체 재학생의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학원 재학생 수는 자연대, 공과대, 사범대 등의 순으로 많으며, 각 단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학술 연구 과정에서 학술적인 글쓰기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등의 재학생 수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실시한 기초연구에서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을 포함해 285명을 대상으로 학내의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62%가 대학원 재학 중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학위논문 작성, 학술지 투고 논문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는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문장 쓰기, 글의 구성과 조직,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 등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쓰기의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논문 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공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답의 비중도 높았다.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글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나 선후배에게 검토를 받거나 혼자 스스로 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원 생활 중 글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전공별 논문 작성법과 기초적인 학위논문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문장 쓰기와 글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형태로 글쓰기 튜터링(1:1대면 상담 및 첨삭)을 꼽았으며 그 외에도 워크숍,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2014년도 〈대학원생 글쓰기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원생의 학술적인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글쓰기교실에서 2015년도 1학기에 이루어진 대학원생 글쓰기 상담 경험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내 학습지원 기관의 대학원생 글쓰기 상담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등에 대한 단상(斷想)을 적어보려고 한다.

2.

글쓰기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쓰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학부생의 학술적 글쓰기(리포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예산이 학부생 대상 지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내의 대학원생 지원 예산을 확보할 경우 간헐적으로 학위논문 작성법, 글쓰기 특강 등의 형태로 대학원생 글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적을 제외하고, 글쓰기교실의 대학원생 글쓰기지도와 교육은 연구교수 1인에 의해 1:1 대면지도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프로그램이 유일한 설정이다.

필자는 2015년 3월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원생 글쓰기 상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단과대학명	상담 건수	단과대학명	상담 건수
공과대학	4	국제대학원	2
미술대학	12	법과대학	4
보건대학원	2	사범대학	16
사회과학대학	4	음악대학	2
인문대학	12	환경대학원	4
합 계		62	

총 62건의 상담완료 학생 가운데 〈글쓰기교실 상담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수는 총 39건이었다. 39건의 설문지를 소개 분석한 뒤 논의할 만한 사항을 언급해보겠다.(참여학생 명수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동일 학생이 매번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건수로 표기함)

상담결과 설문지를 작성한 39건의 상담은 석사(수료포함) 28건, 박사(수료포함) 11건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이 상담 받은 글의 종류는 학위논문(25건), 수업과제물(10), 학술지 투고논문(2), 기타(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업과제물과 학술지 투고논문의 경우 글의 종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담 결과 상담의 유익성에 대한 답변 결과는 아래와 같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번 상담이 유익했습니까?	답변 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② 그렇지 않다	1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다	9
⑤ 매우 그렇다	28

그리고 상담 내용 만족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5. 유익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주제나 아이디어 만들기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	9
② 목차나 글의 구성 등의 구조적인 부분	30
③ 논리적 전개나 글의 흐름	32
④ 인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11
⑤ 문법과 맞춤법 등의 표현적인 부분	11

한편 상담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 혹은 불만족의 내용으로 답한 것은 아래와 같다.

7. 상담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상담 시간(길이)의 적절성	2
② 상담 교수의 전문성	6
③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	7
④ 상담실 환경의 쾌적성	1
⑤ 없음(기타)	22

실제 상담을 진행한 튜터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개선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언급할 내용이 있다. 먼저 대학원생들의 ‘개선 요구 사항’ 가운데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과 관련해서이다.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 표현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표현 그대로의 의미는 온라인에서 개설되어 있는 상담시간에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형식이므로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에는 큰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 항목을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유추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담시간대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학원생 일대일 대면 상담은 1주일에 6시간이 개설되는데, 그 숫자만으로는 학생들의 선택폭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상담방법에 있는 듯하다. 대면지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글쓰기상담의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문제 혹은 대면상담의 부담감 등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이메일 상담의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의 요구들이 ‘신청 시스템의 불편함’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상담교수의 전문성’이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것이다. 실제 상담을 진행한 튜터의 입장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상담 결과 중 만족도의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답한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즉 대학원생의 글쓰기 상담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해당 전공의 전문가(지도교수)가 코칭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이나 투고논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주안점 혹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시도했다. 실제 상담에서 논문의 주제-방법-대상의 적절성과 그 분석 결과의 논리적인 구성과 전개에 주안점을 두려고 했다. 해당 전공분야의 혹은 해당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부분의 독창성이나 적합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 지도교수의 지도 영역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가운데 구성과 전개 그리고 인용법을 포함한 표현의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앞서 학생들이 답한 상담 만족도의 구체적인 내용부분에서 글의 ‘목차-논리적 구성-전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글쓰기교실을 방문하는 대학원생들과 글쓰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학원생 글쓰기 지도’와 관련해 상담법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을 적어보려고 한다.

먼저, 해당 전공자가 아닌 튜터가 대학원생이 작성하는 글에 대해 상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비단 대학원생이 작성하는 글에만 해당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석박사 학위논문과 전공 학술지 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전공자가 아닌 자가 상담을 하는 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필자는 국문학 전공자이지만, 지난 학기 사법대, 사회대, 미술대, 공과대 등등 다양한 전공학문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투고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글을 상담했다. 상담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해당 글을 읽고 코멘트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해당 전공 분야의 학문적 관습이나 주제-방법 등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해당 전공에 대한 공부를 통해 학생의 글을 만나는 것이 상담의 준비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읽는 일(상담지도)은 맞춤법에 맞는 문장을 썼는지 하는 ‘첨삭’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해당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의 내용은 전공자가 아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거나 상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 가운데 튜터의 이런 준비에 신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담 이용 학생들은 재방문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요구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학생들은 해당 전공 튜터에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다. 2014년도에 대학원생 글쓰기지도 프로그램으로 ‘명예교수’님을 멘토로 초빙하여, 신청한 학생의 전공학문에 맞춤형으로 명예교수님 가운데 해당 전공자를 연결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었다. 진행과정에서 명예교수님들 가운데 ‘학위논문 지도’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실 명예교수님들이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그 이유로 학위논문은 지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투고 논문에 한정해 상담한 결과 학생들의 상담 신청 수가 턱없이 적었다. 명예교수님들의 ‘학위논문 상담 불가’ 사건을 대학원생 글쓰기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렇다고 대학원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모두 지도 교수가 할 일이라고만 해서도 곤란하다. 그간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이용한 대학원생

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대학원생의 글쓰기 상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대학원생 상담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논문쓰기에 대한 것이다. 외국인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 대학원생 상담자의 경우 한국어 글쓰기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다. 이들 학생은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발표단계 혹은 중앙도서관 제출에 임박해 이른바 ‘교정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도교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교정을 받아오라고 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교정을 받고 싶다고 한다. 외람되지만 글쓰기교실 대학원 상담은 ‘부분 교정’ 지도 정도에 그치고 주로 논문의 구성이나 논리적인 전개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글은 맞춤법과 바른 문장 쓰기 차원의 ‘교정첨삭’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불만이 없을 수 없겠다. 물론 외국인 학생의 논문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전공 내용 부분의 지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말한 글쓰기교실의 대학원 상담의 경우와 아울러 학내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및 상담이 다른 기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논문작성 클리닉’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학내 연구자의 논문 작성을 위한 1:1 집중 컨설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상시 상담의 형식으로 해당 전공 분야별로 8명의 직원 튜터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 2015년 7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9월 현재 약 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상담의 상당 부분은 “표절예방 및 올바른 인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서지정보 관리, 학술 정보 검색 방법, 논문 투고 및 출판 방법” 등의 교육에 할애된다고 한다. 튜터 직원은 많은 학생들이 ‘교정-교열’을 요구하지만 ‘교육’에 방점을 찍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 부분은 전담 튜터라고 모두 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이 상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의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역시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글쓰기윤리와 관련된 표절 예방 교육, 학술정보 검색법, 논문투고 및 출판 방법, 참고문헌 작성법 등은 ‘교육’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세부전공을 반영한 교육일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학문의 전공자가 튜터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이 가장 이상적인 상담이자 교육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한편 외국인 대학원생 글쓰기 지원과 관련해 인문대학 국제지원센터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 작성에 대해 ‘교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학생이 신청을 하면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해당 전공분야를 고려한 튜터 배정을 하고 해당 튜터에게 100만 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 2015년 1학기 20건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학위논문이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교정교열’ 상담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대 소속 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글쓰기교실을 방문한 인문대 외국인 대학원생은 이 프로그램은 논문작성 단계에서 ‘교정교열’ 단계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실제 논문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완한다면 인문대 국제지원센터의 해당 프로그램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결과표로 제시한 곳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쓰기교실 상담실을 방문한 학생들의 소속을 보면 사범대학, 미술대학의 비율이 높다. 그 가운데 사범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인문대학의 해당 프로그램을 참고한다면 요구가 많은 단과대별로 대학원생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